

自由主義의 哲學的 解明②

朴致祐

運命은 自由와 大端히 相距한 概念처럼 생각됨이 普通이다. 이것은 無理가 아니다.-왜 그러냐하면 運命은 반듯이 엇더한 必然性的 意味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事實에 잇서서는 이 兩者는 決코 것처럼 無□한 것은 아니다. 運命에關해서 이미 누구보다도 기쁜 洞察를 가졌다고 推測되는 『슈팽글러』가 일즉히 말한 바와 가치 運命이란 外的 必然성에 不過한 自然因果와는 오히려 對立되는 이를테면 內的 必然性, 卽 人間的인 必然性인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單純한 必然性, 卽-自然因果와는 嚴密히 區別되는 하나의 獨特한 必然性인 것이다. 運命은 元來 單純한 必然성이 아니라 實로 偶然的인 必然성이기 때문이다. 運命과 自由와의 距離는 그림으로 運命이 이처럼 偶然性を 內包한 概念인 以上 그다지 먼 것은 아닐 것은 想像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웨인가하면 自由란 元來 偶然과 完全히 一致된다고는 못할망정 自由업는 偶然, 自由를 想像함은 아모리 보아도 困難한 일임에 틀림업슬 터이니까. 어째든 運命의 運命다운 點은 그것이 單純한 必然성이 아니라 偶然的인 必然성이며, 偶然한 偶然성이 아니라 必然的인 偶然性인 點에 잇는 것이다. 悲劇이란 元來 이러한 意味를 가진 事件(運命)에 關한 報告以外的 아모것도 아니다. 이것을 理解함이 업시는 希□的 諸 悲劇을 理解함이 업시는 古代人의 全 生活(運命生活)을 알아낼 것이 업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 古代及 中世人의 中心觀念은 『運命』이다.

그러면 이 運命은 如何한 論理的 過程을 밟아 近代人의 所謂 『自由』에까지 轉身할 수 잇섯는가? 運命이 가진 바 以上과 가튼 興味잇는 兩面을 考慮함으로써 우리는 假令, 여기서 다음과 가튼 斷案을 내린다면 이것은 單純히 皇唐한 抑說에 不過할 것일까? 卽-古代人의 運命概念속에 깊히 埋沒되어 無自覺的으로 渾溶되어잇는 偶然性和 必然성이 □次로 各各 明確한 形態로 自覺되어 事實은 完全히 分化精鍊된 것이 다름 아닌 近代人의 新發見이라고

떠드는 『意味의 自由』와 『自然의 因果』-다시 말하면 『自由律』과 『因果律』의 兩者가 아닐까? 自意識의 □人을 맞나 運命의 渾一體가 崩壞되어 그리로부터 偶然性은 『自由律』로 必然性은 『因果律』로 各各 오늘과 가튼 形態로 分化發展된 것이나 아닐까? 이리한 우리의 斷定은 事實 아모리 보아도 思惟의 至極히 自然스러운 □結이라고 맞게는 못할 것이다. 大體 運命觀念이 解體될 때 그 속에 숨어있던 그 偶然性和 必然성은 어대 갖단 말인가? 偶然性を 自由律로 必然성은 因果律로 分化發展되었다고나 보지 안는다면 近代人の 自由律과 因果律의 淵源을 어대서 求할 터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나 할 터인가? 近代人에 이르러 始作된 自意識의 發達은 事實은 古代的인 運命觀念 解體를 招來하였든것이며 이에 그들은 그로부터 『自然의 因果性』을 覺得함과 同時에 『意念의 自由』라는 새로운 觀念을 發見하게 되었슴에 틀림 업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分化過程에 잇서 前者 卽 因果律의 精化를 擔當한 市民의 自意識이 곳 『가리레오』에 始作된 近代的 自然科學이엇든 것이며, 後者 卽 自由律의 精化를 擔當한 市民의, 自意識이 곳 다름 아닌 『데칼트』에 始作된 (특히 『칸트』를 中心으로 降盛을 □한) 近代哲學 卽 『市民哲學』이엇든 것이다』 以上으로 우리는 『自由』의 觀念이 人類의 歷史에서 如何한 過程을 밝아 確立되었든가를 보아온 터이다. 自意識의 侵人에 依한 運命의 解體는 □竟은 近代市民社會에 니르러 『自由』를 分娩하고만 셈이다. 實로 自由의 觀念이야 말로 古代 及 中世에서는 바랄 수 업섯든 近代 市民人의 發見이라고 할 수 잇는 것이다. 自由主義란 다름 아니었다. 이리케 차저진 『自由』의 觀念을 自身의 社會的 解放에 □役하려는 市民의 意慾이 하나의 □□한 『이즘』으로 化한것이 다름 아닌 『自由主義』였든 것이다.